

# 구약논단

제15권 2호(통권 32집) 2009년 6월 30일

김 창대(안양대) 주위 문맥에서 본 시편 46편의 시온 신학 .....	63
본 연구의 목적은 시편의 시온신학을 시편 46편과 주의 문맥에서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편이 조직적으로 배열되었다는 구성방법론(composition method)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논지는 시온의 하나님의 임재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을 함께 동반한다는 것이다. 다소 평이한 논지이지만 시편의 전체 편집의도의 관점에서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Kim, Chang-Dae Zion Theology of Psalm 46 in Its Literary Context .....	63

---

## 주위 문맥에서 본 시 46편의 시온 신학

---

김 창대 | 안양대

### 1. 들어가는 말

기존의 시편 연구는 궁켈(H. Gunkel)과 모빙켈(S. Mowinckel)의 영향으로는 개별 시들의 역사적 상황(Sitz im Leben)에 주안점을 두고, 그것을 기초해 시들을 여러 양식(Gattung)으로 분류하여 시를 해석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었다.<sup>1)</sup> 시들을 구체적으로 찬양 시, 탄원 시, 시온 시 등과 같은 여러 장르로 구별하고, 장르 별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구조에 관심을 가졌다.<sup>2)</sup> 특별히 모빙켈은 여기에 더 추가하여 각 시들의 제의적 배경을 강조하고, 가을 신년 축제의 관점에서 시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sup>3)</sup> 하지만 윌슨(G. H. Wilson) 이래로 시편 연구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주위 시들의 문맥에서 시를 보려는 새로운 방법들이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다.<sup>4)</sup> 그래서 오늘날 시편의 해석 작업은 개별 시들의 장

---

1) H. Gunkel, *The Psalms: A Form-Critical Introduction*, T. M. Horner (옮김), (Philadelphia: Fortress, 1967); S. Mowinckel, *The Psalms in Israel's Worship* 2 vols, D. R. Ap-Thomas (옮김), (Nashville: Abingdon, 1962).

2) D. M. Howard, Jr., "Recent Trends in Psalms Study," D. W. Baker/B. T. Arnold (eds.), *The Face of Old Testament Studies: A Survey of Contemporary Approaches*, (Grand Rapids, Mich.: Baker, 1999), 330쪽.

3) D. M. Howard, Jr., "Editorial Activity in the Psalter: A State-of-the-Field Survey," J. Clinton McCann (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SOTSup. 15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53쪽.

4) G. H. Wilson,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SBLDS 76), (Chicago: Scholars Press, 1985).

르를 고려하면서도 최종 편집자(또는 배열자)가 시편의 시들을 전체 한 권의 일관성을 가진 통일적 메시지를 갖도록 배열한 편집 작업(editorial activity)에 주목한다.

하지만 그런 최종 편집자의 작업을 통해서 시편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데에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길링햄(S. Gillingham)은 시편 전체의 통일적 메시지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음을 지적한다. 즉 시편의 최종 배열이 종말에 하나님의 통치를 부각시키기 위한 종말론적 목적임을 주장하는 부류와 도덕적인 교훈이 주목적임을 강조하는 부류가 있음을 지적한다.<sup>5)</sup> 전자의 대표적인 학자는 윌슨으로서, 그는 시편의 전반부인 1-3권은 다윗 왕권에 초점을 맞추지만 4-5권은 다윗 왕권이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시 2편 앞에 시 1편이 추가된 것은 시 2편에서 언급되는 다윗 왕권의 위상을 희석시키고 야훼의 왕권을 따를 것을 충고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sup>6)</sup> 이에 반해,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편집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 중 대표적인 사람은 매칸(J. C. McCann)이다. 그는 시편이 모세 오경처럼 5권으로 묶어진 것에 주목하고, 시편 전체의 메시지는 야훼의 율법으로서 읽혀지기 위해 편집되었다고 주장한다.<sup>7)</sup>

한편, 시편이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진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더 나아가 시들이 주위에 인접한 시들의 문맥에서 해석하도록 편집

---

시편 연구의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박사과정 논문을 참조하라. So-Ra Kang, "Reading Book 1 of the Psalter through the פְּסַלְטִים Sayings," (PhD diss.,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07), 26-62쪽.

5) S. Gillingham, "The Zion Tradition and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J. Day (ed.), *Temple and Worship in Biblical Israel: Proceedings of the Oxford Old Testament Seminar*, (New York: T&T Clark, 2005), 308-309쪽.

6) G. H. Wilson, "Shaping the Psalter: A Consideration of Editorial Linkage in the Book of Psalms," J. Clinton McCann (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SOTSup. 159), (Sheffield: JSOT Press, 1993), 81쪽.

7) J. Clinton McCann, Jr., *A 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Book of Psalms: The Psalms as Torah*, (Nashville: Abingdon, 1993). 이와 비슷하게 James Luther Mays는 시편 전체를 하나의 책으로 읽을 때 그 의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것을 교훈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James Luther Mays, "The Place of the Torah-Psalms in the Psalter," *JBL* 106 (1987), 10쪽. 구체적으로 Mays는 시편 1-2편은 시편 전체의 해석적 가이드로서 모든 시들을 율법의 관점에서 읽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This intricate pairing as introductions says that all the psalms dealing with the living of life under the Lord must be understood and recited in the light of the reign of the Lord and that all psalms concerned with the kingship of the Lord are to be understood and recited with the torah in mind."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와이브레이(R. N. Whybray)이다. 그는 시 2, 72편, 그리고 89편과 같은 제왕 시들(royal psalms)의 위치는 의도적인 배열의 결과임을 인정하지만, 모든 시들이 조직적으로 주위의 시들과 연관되어 편집되거나 배열되었다는 생각에는 반대한다.<sup>8)</sup> 이와 달리 데이빗 하워드(D. M. Howard)는 시편의 시들은 주위의 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따라서 주위의 시들의 문맥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9)</sup>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시편을 통일적인 편집 작업을 통해 주위의 문맥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시도는 여전히 발아적인 단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sup>10)</sup> 하지만 최근의 시편 연구 경향에 따라 시들을 주위 문맥의 관점에서 연구하려는 작업은 탄력을 받고 있음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은 비록 초기 단계에 있지만, 시편 해석에 많은 빛을 던져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sup>11)</sup> 여기서 시편의 시들을 주위의 문학적 문맥과 관련해서 그 의미를 찾을 때, 거기서 나오는 문학적 의미

8) R. N. Whybray, *Reading the Psalms as a Book*,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99쪽.

9) David M. Howard, Jr., *The Structure of Psalms 93-100* (Biblical and Judaic Studies 5),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97).

10) S. Jonathan Murphy, "Is the Psalter a Book with a Single Message?" *Bibliotheca Sacra* 165 (2008), 292-293쪽. 여기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It seems that a common denominator in all the proposals is selectivity. The selection of important psalms in the holistic approach—for example Psalms 1, 2, 72, 89, 90, or 150—casts doubt over the validity of this proposal as representing the entire corpus." 한편 M. A. Vincent는 시편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시들의 배열의 목적이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데에 강한 의구심을 표한다. M. A. Vincent, "The Shape of the Psalter: An Eschatological Dimension?" P. J. Harland/C. T. R. Hayward (ed), *New Heaven and New Earth. Prophecy and the New Millennium: Essays in Honor of Anthony Gelston*, (Leiden: Brill, 1999), 61-82쪽. 특별히 시편 5권에 대한 그의 평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Book 5, often assumed to be the latest book of the Psalter (correctly, in my view) and thus most accessible to a process of editorial adjustment, bears the least evidence of thematic shaping of any of the books, and conforms in only the most weak way to the thematic development put forward for books 1-4."

11) 이와 관련해서 N. L. deClaissé-Walford의 글을 지적하고 싶다. 여기서 그녀는 시편 22, 23, 그리고 24편이 어휘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면에서 하나의 단일한 동심원 구조(chiastic structure)를 가지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그녀의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N. L. de Claissé-Walford, "An Intertextual Reading of Psalms 22, 23, and 24," P. W. Flint/P. Miller (eds), *The Book of Psalms: Composition and Reception*, (Boston: Brill, 2005), 139-151쪽.

(literary meaning)가 과연 원래 개별 시들이 작성될 때 역사적 상황에서 의도된 역사적 의미(historical meaning)와 연속선에 있는가 라는 해석적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월키(B. Waltke)는 시편에서 주위의 문맥을 통해 해석자가 얻게 되는 본문의 의미는 본문의 원래 역사적 의미와 “유기적 통일성”(organic unity)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한 마디로 시편 안에 여러 시들이 정경으로 들어와서 시편이 확대될 때, 개개의 시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역사적인 의미가 시편 전체의 정경적 문맥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기적이고 태생적 관계 속에서 더 깊어졌다는 설명이다.<sup>12)</sup>

여기서 이런 해석적 논의를 자세히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본문 배후에 있는 역사적 배경과 그 의미보다는, 최종 완성된 정경적 문맥에서 시편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할 것이다. 그리고 시편의 시들이 통일성 속에서 의도적으로 배열되었다는 인식 속에서 시 46편의 시온 사상을 주위의 문맥을 통해 그 의미를 파헤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별 시들이 갖는 장르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주위의 시들에 주목하여 시 46편의 시온 신학이 시편 2권의 문맥에서 주위의 시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지는 지를 살필 것이다. 더 나아가 시 46편의 시온 신학이 시편 전체의 시각에서 본 시온 사상에 대한 해석과 어떤 주제적 통일성을 이루는지를 연구할 것이다.

## 2. 시 46편

시 46편의 장르는 시온 시에 속한다.<sup>13)</sup> 이 시의 구조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 하지만 본인은 다음과 같은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sup>14)</sup>

12) B. Waltke, “A Canonical Process Approach to the Psalms,” J. S. Feinberg/P. D. Feinberg (eds), *Tradition and Testament*, (Chicago: Moody, 1981), 3-18쪽; idem, “Theology of Psalms,” *NIDOTTE* 4, 1100-1115쪽; idem, “Superscripts, Postscripts, or Both,” *JBL* 110 (1991), 583-596쪽. 월키(Waltke)는 시의 타이틀과 간단한 설명이 그 시의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3) G.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vol. 1, D. M. G. Stalker(옮김), (New York: Harper Collins, 1962), 46쪽.

14) 한편 S. Terrien은 시편 46편은 1-7절이 다음과 같은 동심원 구조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S. Terrien, *The Psalms: Strophic Structure and 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03), 373쪽.

- A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מִצְרֹן) (1절)
- B 요동하는 산과 흉용하는 바다 앞에서도 두렵지 않음(2-3절)
- C 요동치 않는 시온에서 하나님의 도우심(4-5절)
- B' 흉용하고 요동하는 이방 왕국 앞에서 하나님이 땅을 평온케 함(6-9절)
- A' 높아지시는 여호와와 우리를 위한 높은 산성(גִּישׁוֹן)(10-11절)

이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핵심은 소 단락 C로서 창조 세계와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대적들이 요동할(שׁוּמ) 모트/요동하다)지라도 하나님의 성인 시온은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크레이기(P. C. Craigie)의 지적처럼 시 46편은 고대 근동 아시아의 창조 신화에서 등장하는 바다로 대변되는 무질서의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sup>15)</sup> 그래서 무질서의 세력인 암(바다)을 물리치고 창조 질서를 유지하였듯이, 야훼께서 바다라는 대적을 물리치고 시온을 영원한 창조 질서의 일부로 세우셨음을 보여주고 있다.<sup>16)</sup>

- 
- A. 피난처와 힘(1a)
  - B. 하나님의 도우심과 두려움이 없음(1b)
  - C. 땅이 요동함(2a)
  - D. 바다가 흉용함(3a)
  - E. 하나님의 성(4a)
  - E. 제 때에 도와주심(5b)
  - D. 이방 왕국이 동하고 흉용함(6a)
  - C. 땅이 황무함(6b)
  - B'. 만군의 야훼가 우리와 함께 함(7a)
  - A. 산성이고 힘(7b)

하지만 그의 분석은 8-11절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 본인은 8-9절은 이방 나라들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물리치고 땅을 평온케 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6절과 계속 연결되어 하나의 소단락을 이룬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고 본다.

- 15) P. C. Craigie, *Psalms 1-50* (WBC 19), (Waco, Texas: Word Books, 1983), 343쪽. 한편 S. Terrien은 여기서 바다는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에서 나오는 마르둑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한다. 참조 S. Terrien, *The Psalms*, 372쪽.
- 16) 바다의 세력을 물리치고 질서를 세우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와 가나안 창조 신화에서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한편으로 이 두 창조 신화는 서로 차이가 있다.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는 마르둑이 티아맛으로 대변되는 바다를 물리치고 세상을 창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나안 창조 신화에서는 이미 세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바알이 바다라는 무질서 세력을 물리침으로써 그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가나안 창조 신화는 창조 질서의 유지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창조 신화에 속한다고 D. J. McCarthy는 주장한다. D. J. McCarthy, S. J., "Creation Motifs in Ancient Hebrew Poetry," B. W. Anderson (ed), *Creation in the Old Testament* (Issues in Religion and Theology 6), (Philadelphia: Fortress, 1984), 74쪽.

그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은 영원히 요동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다. 여기서 “요동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נָדַד**(모트/요동하다)로서, 이것은 2절에 산이 요동한다고 할 때에도 똑같이 사용된다. 재미있게도 이 단어는 다시 6절에 왕국이 동하다(요동하다)라고 말할 때에도 다시 등장하여 시 46편에 중요 단어로 나타난다.

요점은 하나님의 성인 시온은 자연의 무질서 세력과 열방으로 대변되는 혼란의 세력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시온에 계신 야훼는 우리에게 확실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다.<sup>17)</sup> 또한 시온 성 안에서 강이 고요히 흐르며 성을 기쁘게 한다는 언급은 시온이 더 이상 물로 대변되는 무질서의 세력에 의해 흔들릴 수 없는 영원한 창조 질서이며, 가나안의 엘 신이 거하는 자폰 산처럼 세상의 중심임을 보여준다.<sup>18)</sup> 이런 시온 전승에 대해 그 역사적 기원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물음은 본 연구의 주제를 벗어난 것이다.<sup>19)</sup>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다의 무질서 세력을 언급함으로써 시 46편의 시온 신학은 가나안 창조 신화(또는 메소포타미아 창조 신화)에서 사용되는 메타포와 표현들을 차용하여 하나님이 시온을 영원한 창조 질서로 세웠다는 창조 신학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sup>20)</sup> 이런 점에서 시 46편의 시온은 가나안의 자폰 산처럼 일종의 창조의 중심인 우주적 산(cosmic mountain)으로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묘사되며, 따라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중심임을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레벤슨(J. D. Levenson)은 이스라엘에게 시온은 우주의 중심으로서 “세상의 요체이며 우주의 본질이자 우주의 작은 모형이다”라고 주장하였다.<sup>21)</sup>

17) Kraus는 바다로 대변되는 무질서의 세력에 대한 가나안 신화는 이스라엘에 차용되면서 역사화되어 시온을 위협하는 열방의 세력으로 변형되었다고 본다. H.-J. Kraus, *Theology of the Psalms*, K. Crim(옮김), (Minneapolis: Fortress, 1992), 81쪽.

18) 가나안의 창조 신화에서 보면 가나안의 최고의 신이 거하는 산은 우주의 중심이다. 그리고 그 산에서 엘 신은 두 개의 강의 근원지에서 통치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참조 R. J. Clifford, *The Cosmic Mountain in Canaan and the Old Testa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 48, 68쪽.

19) 시온 전승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견해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여부스 족의 가나안 창조 신화에서 나왔다는 주장, 둘째는 다윗 왕궁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 그리고 마지막은 실로의 언약궤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이미지를 도입한 신학적 산물이라는 주장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B. C. Ollenburger, *Zion the City of the Great King* (JSOTSup 4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7), 17-19쪽.

20) 실로 시편 78: 68-70은 시온이 창조 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시 46편의 초두에서 야훼는 단순히 피난처(מִצְוֶה 마하세)로 언급되지만, 11절에서는 높은 산성(בְּצֻר 미쉬가브)으로 제시된다. 이것은 시 46편 10절의 “하나님이 높아지신다”(יָרָם/높다)라는 말과 같은 이미지에서 나온 것이다. 시온에서 하나님이 높아지신다는 주제는 구약에서 잘 알려진 사상이다(사 57: 13-15 참조). 이것은 또한 시온이 모든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뜻을 함의한다(사 2: 1-4). 그래서 시 46편 4절의 시온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יְיָ אֱלֹהִים 엘리온)이신 하나님의 모습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sup>22)</sup> 구체적으로 시 46편 10절은 4절에서 높아지신 하나님의 높아지심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시온을 위협하는 대적들을 물리치심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임을 보여준다.<sup>23)</sup>

요약하자면, 시 46편은 시온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이 요동치 않는 창조 질서인 것처럼 영원히 안전할 것임을 지적한다. 특별히 시온이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서 자신의 대적들과 싸우시는 용사이시기 때문이다. 시 46편 11절에 만군의 야훼(יְיָ צְבָאוֹת 야훼 제바오트)라는 어구는 군사적인 이미지를 내포하는 용어이다.<sup>24)</sup> 따라서 하나님은 용사이시며, 시온을 영원하고 굳건한 창조 질서로 세우신 분이시기에, 시온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흔들릴 수 없다. 한 마디로 시온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시온의 영원성과 안정함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한다.<sup>25)</sup> 그리고 시온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시온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확장되어 있기에, 시온은 또한 세상의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 실로 시 46편에서 또 다른 중요 낱말은 “세상”(עֲוֶן

21) J. D. Levenson, *Sinai and Zion: An Entry into the Jewish Bible*, (New York: HarperCollins, 1985), 135-138쪽. B. C. Ollenburger는 구약의 시온 전승은 기본적으로 창조 신학으로서 하나님은 역사보다는 창조를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신다고 주장한다. 참조 B. C. Ollenburger, *Zion The City of the Great King: A Theological Symbol of the Jerusalem Cult*, 161쪽.

22) H.-J. Kraus, *Psalms 1-59 (A Continental Commentary)*, H. C. Oswald (옮김), (Minneapolis: Fortress, 1993), 464쪽.

23) 비슷하게 이사야의 시온 신학에서도 하나님의 높아지심은 자신의 대적자들을 공의로 심판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을 언급한다(사 5: 16 참조).

24) P. D. Miller, Jr., *The Divine Warrior in Early Israel* (Harvard Semitic Monographs 5),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145-155쪽.

25) G. C. Earwood, "Psalm 46," *Review and Expositor* 86 (1989), 81쪽. 여기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창조 질서가 무질서의 세력의 엄습으로 위기를 받을지라도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것을 자신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삶을 위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임재는 폭풍 가운데에서도 안전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에레츠)이다(시 46: 2, 6, 8, 9, 10절).<sup>26)</sup>

벤게메른(W. A. VanGemeran)은 바벨론 포로 이전의 유다 백성들은 다윗 언약의 영원성에 기초해서 예루살렘이 결코 파괴될 수 없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sup>27)</sup> 아마도 그런 기대는 산헤립의 침입 시 예루살렘이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경험을 통해 더욱 더 공고해졌을 것이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렘 7장과 26장)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끝까지 예루살렘 성이 안전할 것을 믿었던 것은 바로 이런 시온 신학에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시 46편에서 제시되는 시온 전승의 흐름은 포로 시기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신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3. 시편 2권의 문맥에서 시 46편

시편 2권의 시들을 장르 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42-43편: 개인적 탄식 시	53편: 일종의 지혜 시
44편: 집단적 탄식 시	54-57편: 개인적 탄식 시
45편: 제왕 시(Royal psalm)	58편: 저주 시
46편: 시온 시(Zion psalm)	59-60편: 집단적 탄식 시
47편: 등극 시(Enthronement psalm)	61편: 제왕 시
48편: 시온 시(Zion psalm)	62편: 신뢰 시
49편: 지혜 시	63편: 제왕 시
50편: 언약 갱신 시	64편: 개인적 탄식 시
51편: 개인적 탄식 시	65편: 감사 시
52편: 신뢰 시	66편: 찬양 시

26) Craigie, *Psalms 1-50*, 343쪽.

27) W. A. VanGemeran, *Interpreting the Prophetic Word: An Introduction to the Prophetic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ch.: Zondervan, 1990), 56쪽. 박 종수는 그의 논문에서 시온 전승은 “다윗 계약에 기초한 왕조 신학, 계약 신앙, 그리고 창조 신앙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중심 사상을 형성했다”고 주장한다. 박 종수, “시편 74편에 나타난 시온 전승,” 『구약논단』 제 9집 (2000년 10월), 185쪽. 다윗 언약과 창조 신학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다음의 책을 보라. 김 희권, “시편 89편에 나타난 다윗 왕조의 정치신학,” 『구약논단』 제 28집 (2008년 6월), 118-123쪽.

67편: 찬양 시(하나님이 축복을 위한 기도)	69-71편: 개인적 탄식 시
68편: 등극시(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위한 기도)	72편: 제왕 시

이상의 장르 분석의 관점에서 볼 때, 시편 2권은 개인적 탄원 시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disorientation)에서 제왕 시나 등극 시, 또는 지혜 시와 같은 긍정적 방향(reorientation)으로 그 흐름이 교차적으로 반복되고 있다.<sup>28)</sup> 이런 탄식과 긍정의 반복을 통해 시편 2권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단락으로 세분화된다.<sup>29)</sup>

- 1단락: 42-50편(여기서 탄식은 42-44편)
- 2단락: 51-53편(여기서 탄식은 51편)
- 3단락: 54-63편(여기서 탄식은 54-60편)  
- 가장 많은 탄식을 가지고 있음
- 4단락: 64-68편(여기서 탄식은 64편)
- 5단락: 69-72편(여기서 탄식은 69-71편)

이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시편 2권의 기조는 탄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 그리고 신뢰가 각

28) 반면 McCann은 시편 2권은 시편 3권과 같이 탄식과 희망이 교차되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르상으로 볼 때 2권에서도 탄식과 긍정적인 내용이 교차되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다. 참조 J. C. McCann, Jr., "Books I-III and the Editorial Purpose of the Hebrew Psalter," J. C. McCann (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SOTSup 15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103쪽.

29) 한편 신학자 월튼(J. H. Walton)은 시편 2권을 다윗의 생애를 다룬 칸타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조 J. H. Walton, "Psalms: A Cantata about the Davidic Covenant," *JETS* 34 (1991), 21-31쪽. 그래서 다윗의 생애와 관련해서 시편 2권들의 시들이 배열되었다는 논리를 편다. 구체적으로 그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시 45편은 다윗이 등극하는 내용(7절)
- 시 46-47편은 왕위에 오른 다윗의 군사적 승리를 묘사
- 시 48편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주하는 장면
- 시 49-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을 다룸. 구체적으로 시 49편은 다윗의 부와 자랑이 헛됨을 말하고 시 50편은 죄를 씻는데 제사는 효력이 없음을 지적, 시 51편은 죄 용서함을 위한 간구의 기도.
- 시 52편은 암논(삼하 13장)의 사건을 묘사(삼하 13: 1-2, 7)
- 시 54-64편은 압살롬의 반란을 연상시킴(시 55: 12-14, 21; 61: 6; 64: 3-4, 7)
- 시 68-69편은 북쪽 지파 세바(삼하 20장)의 반란을 연상시킴 (시 69: 8)
- 시 71편은 노년에 있는 다윗(시 71: 9, 18)
- 시 72편은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이양되는 장면

단락의 끝에 나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sup>30)</sup>

시 46편은 이런 시편 2권의 문맥에서 등장한다. 특별히 시 46편은 시 42-49편의 고라 시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 고라 자손들은 레위 족속으로 그들의 주된 관심은 시온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일이었다.<sup>31)</sup> 시편 2권에서 시 46편의 위치와 기능에 대해서 길링햄(S. Gillingham)은 시편 2권의 전반부에서 등장하는 고라 시들이 주로 탄식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시 46편은 그런 탄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2)</sup> 매칸은 시편 2권이 정경적인 형태를 취할 때 다음과 같은 의도를 지니게 되었다고 강조한다. “2권의 정경적 형성은 그 안에 다윗 시 모음집(시 51-72편)의 개인적 탄식 시들을 단순히 개인적 고난의 표현뿐만 아니라, 포로 후기의 공동체가 처한 곤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는 힌트를 독자들에게 제공한다.”<sup>33)</sup> 그는 시편 2권의 개별 시들의 역사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시편 전체의 최종 완성과 편집은 포로 후기의 상황을 반영하기에, 시편 2권의 탄식은 포로 후기의 탄식과 연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도록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시편 2권의 문맥에서 시 46편의 시온 사상은 시편 2권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시온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시온은 안전한 곳이기에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34)</sup>

30) 재미있게도 시 3권에서도 2권과 비슷하게 탄식과 희망이 교차되고 있다. 하지만 3권과 2권의 차이는 탄식과 희망의 교차가 3권이 2권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탄식의 강도도 크다는 점에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2권에서는 탄식에서 찬양으로의 교차가 5번 일어나지만 3권은 그 교차가 매우 빈번하다. 그리고 3권의 끝은 2권처럼 제왕 시라고 할지라도(시 72편과 89편) 2권과 달리 탄식이 주요 주제이다. 매칸(McCann)에 따르면, 3권에서는 희망의 메시지가 탄식의 목소리에 함몰되어 전통적인 희망(다윗 왕권, 시온 등)이 공허하게 들리는 수사적 효과를 낳다고 말한다. 하지만 시편 2권에서 전통적인 희망을 다루는 제왕 시, 등극 시, 시온 시 등은 여전히 의미 있는 메시지들로 제시되고 있다. McCann, “Books I-III,” 98쪽 참조.

31) S. Gillingham, “The Zion Tradition and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322쪽.

32) 윗글, 323쪽. 여기서 그녀는 또 다른 고라 시의 모음집인 시 84-85와 87-88편에서 시 87편은 그 앞에 나오는 고라 시인 탄원 시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제시된다고 주장한다.

33) McCann, “Books I-III,” 103쪽.

34) S. Terrien은 포로 후기의 유대 공동체는 시온 이데올로기가 강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 애착을

하지만 이런 메시지는 시편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포로 후기의 탄식적인 상황에서 쉽게 적용될 수 없다. 포로 시기 이전에는 시온이 피난처가 되고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신학이 설득력이 있었지만, 성전의 파괴를 경험한 포로 시기 이후에는 그와 같은 신학에 수정이 불가피했다. 그래서 시온 신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등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본인은 시 46편을 주위에 같은 모티프를 가진 시 47편과 48편의 문맥에서 읽을 때, 시온 신학에 대한 포로 후기의 새로운 이해가 발견될 수 있다고 본다.

#### 4. 시 47편과 48편의 문맥에서 시 46편

적어도 시 45-48편의 배열 목적은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선포하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시 47편과 48편이다. 시 47편은 등극 시로서 야훼의 왕권을 찬양한다. 그리고 앞과 뒤에 있는 시온 시 사이에 위치하여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 왕이심을 더욱 부각시켜 준다.<sup>35)</sup>

시 47편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패널 구조로 되어 있다.

- A. 하나님을 향한 찬양(1절)
- B. 야훼가 왕이심(2절)
- C. 이스라엘로 하여금 열방을 다스리게 함(3-4절)
- D.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올라감(מָאָז)(5절)
- A'. 하나님을 향한 찬양(6절)
- B'.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심(7-8절)
- C'.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9a절)
- D'. 하나님이 높이 올려지심(מָאָז)(9b절)

패널 구조라는 수사적 장치는 평행을 이루는 앞의 평행구가 뒤에 나오

버릴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S. Terrien, *The Psalms*, 385쪽.

35) VanGemeren은 시편 47편은 두 시온시인 46편과 48편을 연결시켜 주면서 시온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야훼의 왕권을 노래한다고 설명한다. 참조 W. A. VanGemeren, "Psalms," F. E. Gaebelin(ed),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5, (Grand Rapids, Mich.: Zondervan, 1991), 357쪽.

는 평행 구에 의해 더욱 발전(progression)되는 효과를 가진다.<sup>36)</sup> 이렇게 함으로써, 시 47편은 야훼가 왕으로 높이 올리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여기서 “높아진다”는 단어의 어근은 **נָלַץ**(알라)로서, 이것은 앞의 시 46편에서 시온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에 사용된 “지존한 자”(יְיָ **אֱלֹהִים** 엘리온)의 어근과 같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 47편은 시 46편에서 시온에 거하신 지존자가 바로 세상의 왕이심을 문맥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C/C'의 평행을 통해 시온에 왕으로 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한 왕이심을 암시한다.

이어서 나오는 시 48편은 시 46편과 같이 시온 시로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 A. 세계의 중심인 시온 산에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높은 산성(**בְּצִיּוֹן**)(1-3절)
- B. 열방이 시온 산을 보고(**אֲרָב**) 도망감(4-7절)
- C. 시온 산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8-11절)
- B'. 시온 산을 보고(**אֲרָב**) 전하라(12-13절)
- A'. 하나님은 영영히 우리를 인도하심(14절)

이와 같은 구조에서, 시 48편의 의미론적 초점(semantic focus)은 시온 산에 거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 특별히 8-11절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perfections)을 찬양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인자’(יְיָ **חֶסֶד**, 시 48: 9)와 ‘의’(יְיָ **צֶדֶק**, 10절), 그리고 ‘공의’(יְיָ **מִשְׁפָּט** 미쉬파트, 11절)이다. 이 단어들은 시편에서 창조의 문맥에서 나오는 용어들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도 하다(시 33: 5-6; 89: 2, 14 참조).<sup>37)</sup> “시온 산이 하나님에 의해 견고하게 세워진다”(יְיָ **כּוֹן**)라고 말할 때(5절), 그 “세워진다”라는 말은 창조의 언어로서 시온 산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시 48편은 하

36) B. K. Waltke, *An Old Testament Theology: An Exegetical, Canonical, and Thematic Approach*,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07), 119쪽.

37) H. H. Schmid는 역사 안에 정치, 종교, 사회, 윤리적 질서는 **צֶדֶק**로 특징짓는 창조 질서와 일치(unity)하는 것으로 보았다. H. H. Schmid, “Creation, Righteousness, and Salvation: ‘Creation Theology’ as the Broad Horizon of Biblical Theology,” B. W. Anderson(ed), *Creation in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Fortress, 1984), 108쪽.

님의 통치가 창조자로서의 통치이며, 그 통치의 영역은 시온에서 해변가, 평지, 바다, 더 나아가 땅 끝으로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음을 묘사한다(7, 10절 참조).<sup>38)</sup> 그리고 그 통치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의 원리인 인자, 의, 그리고 공의임을 말한다.

이 창조의 통치 원리인 인자와 의, 그리고 공의는 호 2장 19절과 렘 9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로 제시된다. 더 나아가 렘 22장 16절은 인간도 하나님의 성품의 모범을 따라 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시 48편과 같은 2권 안에 있는 시 72편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의와 공의를 행하는 존재로 나타난다(시 72: 1-3). 이런 점에서 시 48편은 시온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도 하나님의 성품의 모범을 따라 인자와 의와 공의를 행해야 한다는 진리를 암시하고 있다.<sup>39)</sup> 시 24편은 시온 산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의의 행동이 요구되고 있음을 더욱 분명하게 말한다.<sup>40)</sup> 시 48편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인간의 책임에 대한 암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시 49편과 50편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지혜 시인 시 49편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시 50편은 참된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시 50: 14, 23)임을 말함으로써 시온에서 인간의 도덕적인 헌신에 초점을 맞춘다.

시 46-48편은 시온을 주제로 어휘 면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 시들은 구조적인 면에서 **동심원 구조**(chiastic structure)를 이루고 있다.

- A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46: 1)
- B 시온 산을 의지하는 자의 태도: 두려워하지 않음(46: 2-3)
- C 시온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46: 4-5)
- D 열국을 무찌르시고 땅을 평온케 함(46: 6-9)
- E 높아지시는 여호와와 우리를 위한 높은 산성  
(**גִּבְעוֹת**)(46: 10-11)
- F 하나님을 향한 찬양(47: 1)

38) R. Alter, *The Art of Biblical Poetry*, (USA: BasicBooks, 1985), 123쪽.

39) VanGemeren, "Psalms," 355쪽.

40) D. J. Reimer, "גִּבְעוֹת," *NIDOTTE* 3, 760쪽.

- G 야훼가 왕이심(47: 2)
- H 이스라엘로 하여금 열방을 다스리게 함(47: 3-4)
- I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올라감(אלהים)(47: 5)
- F' 하나님을 향한 찬양(47: 6)
- G'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심(47: 7-8)
- H'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47: 9a)
- I' 하나님이 높이 올려지심(אלהים)(47: 9b)
- E' 시온 산에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높은 산성(ציון)(48: 1-3)
- D' 열방이 시온 산을 보고 도망감(48: 4-7)
- C' 시온 산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48: 8-11)
- B' 시온 산을 의지하는 자의 태도: 시온을 전파함(48: 12-13)
- A' 하나님은 영영히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심(48: 14)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구조는 시 46-48편을 하나의 덩어리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 그러므로 시 46편의 시온 신학은 시 47-48편의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문맥에서 볼 때, 시 46편의 시온 신학은 시온에 계신 하나님은 왕이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왕이심을 보여준다. 또한 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인자, 의, 그리고 공의임을 제시한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완성된 시편의 관점에서 시 46편은 그 주위의 시들과 함께 포로 후기 공동체에게 시온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공의와 의를 행할 것을 새롭게 암시하고 있다.<sup>41)</sup> 다시 말해 시편 2권의 탄식 시들이 함의하는 포로 후기의 탄식적인 상황에서, 시 46편은 시온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말하면서, 동시에 시온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인자와 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암시는 포로 후기에 와서 더 이상 시온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곳이 아니라는 철저한 깨달음 때문에 나왔다고 설명할 수 있다. 시온에 대한 이러한 암시는 시 46-48편과 인접하여 배열된 시 49편과 시 50편에서 더 잘 드러난다. 그리고 같은 2권의 마

41) 본인은 시온에서 인간의 책임에 대한 강조가 포로 후기에 만들어진 신학적 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포로 이전에도 예레미야의 지적대로 시온에서 인간의 책임이 강조되었지만, 당시 유다는 시온의 형식적인 제사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너무 과신했다. 때문에 포로 후기에 와서 시온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교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막에 나오는 시 72편에서 시온에서 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에서 더 강조된다.

시 46편의 시온 신학에 대한 이런 결론은 시편의 전체 문맥에서 본 시온 사상과도 그 궤를 같이 한다. 지면의 제약으로 시편에서 시온을 언급하는 시들을 모두 다룰 수 없기에 중요한 시들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 5. 최종 형태에서 시편 전체의 시온 신학

많은 학자들이 시편의 시들의 역사적 배경을 성전 예배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시온 사상은 시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문맥적으로 읽는 최근의 경향에서 시편의 메시지를 시온 신학의 관점에서 보는 시도는 그리 흔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길링햄(S. Gillingham)은 시편의 최종 편집은 시온 사상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다시 돌아오실 것을 강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sup>42)</sup> 실로 시편 전체에 걸쳐서 시온은 매우 다양한 언어로 빈번하게 언급된다.<sup>43)</sup>

여기서 먼저 주목할 시는 시 1-2편이다. 많은 사람들이 시 1-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해석학적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sup>44)</sup> 하지만 시 1-2편이 어떻게 해석적 서론으로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 논문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 어쨌든 시 1-2편은 최종 형태의 시편을 이해하는 데 해석적 열쇠를 제공한다. 특별히 시 2편은 공개적으로 시온을 언급한다(시 2: 6). 시 2편은 제왕 시로서 다윗 왕의 통치를 찬양한다. 하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대리자이기 때문에, 시 2편에서 시온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의 통치를 함의하고 있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시 46편의 시온 신학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런데 시 2편은 시편 1편과 같이 묶여

42) Gillingham, "The Zion Tradition and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334쪽. 이에 반해 Zenger는 시편 전체는 성전 예배와 상관없이 영적인 예배에 초점을 맞춘다고 이해한다. E. Zenger, "The Composition and Theology of the Fifth Book of Psalms, Psalms 107-45," *JSOT* 80 (1998), 77-102쪽.

43) Gillingham, "Zion Tradition," 313-317쪽.

44) P. D. Miller, "The Beginning of the Psalter," J. C. McCann (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88쪽.



있다. 시 1편은 지혜 시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매칸은 시편 1-2편이 하나로 묶인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임을 보여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sup>45)</sup> 분명한 점은 시 1-2편에서 '시온'과 '토라'라는 주제가 함께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시 46편을 문맥적으로 읽을 때 앞에서 우리가 내린 결론과 일치한다. 즉 시 46편의 시온 신학은 인간의 책임을 암시하고 있는데, 시 1-2편도 마찬가지로 인간 왕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 1-2편은 시온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순종을 반드시 동반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시 46편의 시온 신학을 이해할 것을 독자들에게 미리 안내해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시편 전체에 나타나는 시온 사상을 연구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시는 시편 4권에서 아훼가 시온에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내용의 등극시(시 93편, 95-100편)이다.<sup>46)</sup> 시온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등극시의 주위 문맥에서, 특별히 시 95-100편의 앞뒤에 있는 시 94편과 101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개의 시편 안에는 "마음"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그 요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다.<sup>47)</sup> 따라서 시편 4권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순종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sup>48)</sup> 더욱이 시편 4권은 전체적으로 초미와 말미에 모세의 전통을 언급하여 모세 틀(mosaic frame)을 이룬다.<sup>49)</sup> 시편 4권에서 이와 같은 틀(framework)은 등극

45) McCann, *A 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Book of Psalms*, 45쪽.

46) 시 97편과 99편은 시온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분명하게 언급한다(시 97:8; 99:9). 한편 시 93-100편의 배열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D. M. Howard, *The Structure of Psalms 93-100* (Biblical and Judaic Studies 5),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97).

47) J. S. Kselman에 의하면 시 93:5는 시온에서 하나님의 법이 마음을 암시하며, 따라서 시 93편은 시온이 시내산을 대체하는 곳으로 제시된다고 주장한다. 참조 J. S. Kselman, "Sinai and Zion in Psalm 93," B. F. Batto/K. L. Roberts (eds), *David and Zion: Biblical Studies in Honor of J. J. M. Roberts*,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04), 75쪽.

48) 시편 4권의 등극시 안에서도 인간 편에서 마음으로 도덕적인 순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시 95: 10; 99: 7)

49) G. H. Wilson, "Shaping the Psalter: A Consideration of Editorial Linkage in the Book of Psalms," J. C. McCann (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76쪽.

시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시온 통치는 모세 율법에 대한 인간의 준수를 동반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중요한 시는 시편 5권에서 등장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시온 순례 시(시 120-134편)이다. 시편 5권에서 시온 순례 시가 차지하는 위치와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시들이 시 119편 다음에 나온다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논의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50)</sup> 시편 5권에서 시 119편이 시온 순례 시 앞에 최종적으로 배열된 것에 대해, 닐슨(K. Nielson)은 포로 후기의 상황에서 시 119편에서 말하는 토라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행동이 시 120-134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행동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51)</sup> 이런 그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 119편은 시편 5권의 핵심적 위치에 있고, 그 시가 시편의 최종 완성 과정에서 시온 순례 시와 함께 배열되었다는 것은 시온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토라에 대한 인간적인 순종을 함께 동반해야 한다는 시편 전체의 시온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 6. 나가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시 46편의 시온 신학을 포로 후기의 시편 전체에 대한 최종 배열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일차적으로 시 46편에서 시온 상승은 포로 이전의 신학을 반영하고 있지만, 시편 2권이라는 문맥 안에 위치하면서 그 기능이 약간 달라졌다. 즉 시편 2권에서 탄식이 함의하는 포로 후기의 탄식적 상황에서 시 46편은 여전히 시온의 하나님에게 포로 후기 공동체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시 46편의 시온 신학은 주위에 배열된 시들과 함께 새로운 암시를 던져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 47편과 48편과 동심원 구조를 이루면서 시온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는 분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축복

50) P. D. Miller는 시편 119편은 최종 완성된 시편의 관점으로 볼 때 시편 5권의 핵심이라고 이해한다. P. D. Miller, "Deuteronomy and Psalms: Evoking a Biblical Conversation," *JBL* 118 (1999), 11쪽.

51) K. Nielson, "Why not Plough with an Ox and as Ass Together? Or: Why not Read PS 119 Together with PSS 120-134?" *SJOT* 14 (2000), 56-66쪽.

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인자함과 의와 공의를 수행해야 할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다.

시편 2권에서 이와 같은 시온 신학은 시편 전체의 정경적 문맥에서 제시되는 시온 사상을 통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된 시편 전체의 메시지에 대한 해석적 열쇠를 제공하는 시 1-2편에서, 우리는 시온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토라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서두에서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시편 4권의 등극시, 그리고 시편 5권의 시온 순례 시에도 엿볼 수 있다. 그 외에 시편 1권에서 시 15편과 24편은 시온에 거하는 자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한다. 한편 시편 3권에서도 시온을 언급하고 있지만, 매칸의 주장처럼 시편 3권 자체에는 탄식의 기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시온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희망이 공허한 소리로 함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시편 전체의 최종 완성된 형태의 관점에서 볼 때, 시편 전체의 메시지들 중 하나는 시온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진리를 통해 시편의 최종 형태는 포로 후기의 공동체에게 희망과 교훈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시 46편의 시온 신학은 그런 의도를 주위 시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 7. 참고문헌

- 김 회권, “시편 89편에 나타난 다윗 왕조의 정치 신학,” 『구약논단』 제28집(2008년 6월), 107-127쪽.
- 박 종수, “시편 74편에 나타난 시온 전승,” 『구약논단』 제9집(2000년 10월), 166-189쪽.
- Alter, R., *The Art of Biblical Poetry*, (USA: BasicBooks, 1985).
- Anderson, B. W.(ed.), *Creation in the Old Testament* (Issues in Religion and Theology 6), (Philadelphia: Fortress, 1984).
- Clifford, R. J., *The Cosmic Mountain in Canaan and the Old Testa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
- Craigie, P. C., *Psalms 1-50* (Word Biblical Commentary 19), (Waco, Texas: Word Books, 1983).
- de Claissé-Walford, N. L., “An Intertextual Reading of Psalms 22, 23, and 24,” P. W. Flint/P. Miller (eds.), *The Book of Psalms: Composition and Reception*, (Boston: Brill, 2005), 139-151쪽.
- Earwood, G. C., “Psalm 46,” *Review and Expositor* 86 (1989), 79-86쪽.
- Gillingham, S., “The Zion Tradition and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J. Day

- (ed), *Temple and Worship in Biblical Israel: Proceedings of the Oxford Old Testament Seminar*, (New York: T&T Clark, 2005), 308-341쪽.
- Gunkel, H., *The Psalms: A Form-Critical Introduction*, T. M. Horner(옮김), (Philadelphia: Fortress, 1967).
- Howard, D. M. Jr., "A Contextual Reading of Psalms 90-94," J. C. McCann (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Sheffield: JSOT Press, 1993), 108-123쪽.
- \_\_\_\_\_, "Recent Trends in Psalms Study," D. W. Baker/B. T. Arnold (eds), *The Face of Old Testament Studies: A Survey of Contemporary Approaches*, (Grand Rapids: Baker, 1999), 329-368쪽.
- \_\_\_\_\_, *The Structure of Psalms 93-100* (Biblical and Judaic Studies 5),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97).
- Kang, So-Ra, "Reading Book 1 of the Psalter through the אִשְׁרַי Sayings," (PhD diss.,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07).
- Kraus, H.-J., *Psalms 1-59* (A Continental Commentary), (H. C. Oswald 옮김), (Minneapolis: Fortress, 1993).
- \_\_\_\_\_, *Theology of the Psalms* (K. Crim 옮김), (Minneapolis: Fortress, 1992).
- Kselman, J. S., "Sinai and Zion in Psalm 93," B. F. Batto/K. L. Roberts (eds), *David and Zion: Biblical Studies in Honor of J. J. M. Roberts*,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04), 69-76쪽.
- Levenson, Jon D., *Sinai and Zion: An Entry into the Jewish Bible*, (New York: HarperCollins, 1985).
- McCann, J. C., Jr.(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15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 McCann, J. C., Jr., *A 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Book of Psalms: The Psalms as Torah*, (Nashville: Abingdon, 1993).
- Miller, P. D., Jr., *The Divine Warrior in Early Israel* (Harvard Semitic Monographs 5),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 \_\_\_\_\_, "Deuteronomy and Psalms: Evoking a Biblical Conversation,"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8 (1999), 3-18쪽.
- Murphy, S. J., "Is the Psalter a Book with a Single Message?" *Bibliotheca Sacra* 165 (2008), 283-293쪽.
- Mowinckel, S., *The Psalms in Israel's Worship*, 2 vols., D. R. Ap-Thomas(옮김), (Nashville: Abingdon, 1962).
- Nielson, K., "Why not Plough with an Ox and as Ass Together? Or: Why not Read PS 119 Together with PSS 120-134?" *Scandinavian Journal of the Old Testament* 14 (2000), 56-66쪽.
- Ollenburger, Ben C., *Zion the City of the Great King* (JSOTSup 4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7).
- Terrien, S., *The Psalms: Strophic Structure and 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03).
- VanGeneren, W. A., *Interpreting the Prophetic Word: An Introduction to the*

- Prophetic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ch.: Zondervan, 1990).
- \_\_\_\_\_, "Psalms," F. E. Gaebelin (ed), Vol. 5 of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Zondervan, 1991), 3-880쪽.
- VanGemeren, W. A.(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5 vols, (Grand Rapids, Mich.: Zondervan, 1997).
- Vincent, M. A., "The Shape of the Psalter: An Eschatological Dimension," P. J. Harland/C. T. R. Hayward(eds), *New Heaven and New Earth Prophecy and the New Millennium: Essays in Honor of Anthony Gelston*, (Leiden: Brill, 1999), 61-82쪽.
- von Rad, G., *Old Testament Theology*, vol. 1, D. M. G. Stalker(옮김), (New York: HarperCollins, 1962).
- Waltke, B. K., "A Canonical Process Approach to the Psalms," J. S. Feinberg/P. D. Feinberg(eds), *Tradition and Testament*, (Chicago: Moody, 1981), 3-18쪽.
- \_\_\_\_\_, *An Old Testament Theology: An Exegetical, Canonical, and Thematic Approach*,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07).
- \_\_\_\_\_, "Superscripts, Postscripts, or Both,"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0 (1991), 583-596쪽.
- Walton, J. H., "Psalms: A Cantata about the Davidic Covenant,"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34 (1991), 21-31쪽.
- Wilson, G. H.,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SBLDS 76), (Chicago: Scholars Press, 1985).
- Whybray, R. N., *Reading the Psalms as a Book*,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 검색어

시편 • 시온 • 율법 • 왕권 • 창조

투고일: 2009년 5월 1일

심사일: 2009년 5월 25일

게재확정일: 2009년 6월 5일

---

## Zion Theology of Psalm 46 in Its Literary Context

---

**Chang-Dae Kim, Ph. 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Anyang University

This work is a synchronic attempt to explore the theological intention behind the location of Psalm 46 in Book II, then in the entire Psalter. This study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entire book of the Psalms had been canonically shaped by means of an editorial activity which arranged the entire Psalter as a coherent whole. By using the composition method, this study first has dealt with the implications of Zion theology of Psalm 46 in the wider literary context of Book II and in the narrower literary context of Psalms 46-48.

Our special attention is drawn to the fact that Psalm 46 is strategically located in Book II for the purpose of conveying the idea that Zion theology of Psalm 46 is presented as a response to the laments of the post-exilic community. In other words, Psalm 46, with its surrounding psalms (especially Psalms 46-48), highlights that Zion where Yahweh is enthroned as eternal king is a secure refuge which cannot be shaken; and, however, it suggests that the recipient of the blessings from that Zion is only the one who behaves according to the moral principles of Yahweh's rule, which are justice, righteousness, and *Hesed*. In doing so, Psalm 46 serves the function of encouraging the

post-exilic community to trust in Yahweh's rule on Zion with an ethical commitment to Yahweh's Torah.

This finding is more evident when we look at the way that psalms with Zion markers are arranged in the whole Psalter. Due to the constraints of the study, we have called attention to a few important psalms which display the main characteristics of Zion theology of the Psalms. Psalms 1 and 2 contain Yahweh's torah and Zion respectively in such a way that Zion theology of affirming Yahweh's unstable kingship should be understood as connoting human obedience to Yahweh's torah. Also, an overview of Psalms 93-100 (the so-called Yahweh enthronement psalms) lends more credence to our suggestion that Yahweh's rule on Zion demands human moral conduct represented by obeying Yahweh's law with heart. What is noteworthy in the latter psalms is that Book IV of which Psalms 93-100 are part is composed by the Mosaic framework with Mosaic traditions occurring at its beginning and end. This framework entails that Yahweh's rule on Zion as king should be accompanied by human obedience to Yahweh's law. The relationship between Yahweh's kingship in Zion and human responsibility is further supported by the adjacency of Psalm 119 to Psalms 120-134 (Zion pilgrimage psalms)

#### **Keywords**

Psalm  
Zion  
law  
Kingship  
Creation